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현황 및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 재해복구사업 10,135건 중 6,781건(66.9%) 완료, 과거보다 복구 속도 빨라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지난해 산불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재해복구사업 총 10,135건 중 6,781건(66.9%)이 완료됐다. 이 중 산불 피해지역은 1,031건 중 561건(54.4%), 호우 피해지역은 9,104건 중 6,220건(68.3%)이 완료됐다. 특히 호우 피해의 경우 사업 완료율이 2024년(48.9%) 대비 19.4%p, 2023년(43.7%) 대비 24.6%p 높아, 과거에 비해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간 단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 이행 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조기 이행을 지속 독려해 왔다.

물리적인 여건이나 행정 절차 등으로 우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업장은 핵심 공정을 우선 완료하도록 해 피해 재발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전국 단위 현장점검(4.27.~5.22.)을 통해 사업장 공정 및 안전관리 대책, 임시조립주택 설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가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
는 한편,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4-205-5310)
		담당자	사무관	신명수 (044-205-5321)
	경북·경남·울산초대형 산불피해지원및재건지원단 복구재건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형석 (044-205-5841)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4-205-5843)

